

조선대, 임시이사 재파견 저지 '정이사 선임 지연 위법' 소송

교과부 장관 상대 ... "재량권 일탈·남용"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선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정이사 선임 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일 밝혔다.

조선대는 소장에서 "교과부가 2006년 4월 조선대 운영이 정상화된 만큼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으므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정상화추진위를 구성, 2008년 1월 정이사 후보 10명을 추천했다"며 "그러나 교과부장관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정이사 선임 결정을 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특히 장기간의 임시이사

체제로 인해 의과대 간호대학과 조선간호대학(3년제)간의 통합 무산, 시립재활병원 유치 및 운영 관련 업무 예로 등 대학 발전에 크고 작은 장애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조선대 교수 526명은 21년 만에 긴급 교수회의를 갖고, 교과부의 임시이사 재파견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선대 교수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비상회의를 연 것은 지난 1988년 학원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이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2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구 경영진의 임금이 작용한 임시이사 재파견 방침이 결정된다면, 조선대 전 구성원과 광주·전남 지역민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부정 비리로 학교에서 퇴출된 자를 배제한 정이사 구성만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요구이며, 정부의 이성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최근 사법위에 통보한 임시이사 후보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구 재단측 또는 우편향 인사들이며, 지금까지 단연직 이사였던 조선대 총장은 아예 후보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3월 급여에서 0.5%를 자진 공제해 법인 정상화 관련 기금으로 총당하기로 했다.

"조선대 정상화 및 전경영진 복귀 저지 비상대책위"도 이날 회의를 갖고 2일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조선대 교수와 학생, 총동창회 및 관련 기관 직원 등 350여 명은 2일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를 향의 방문한다.

1988년 학내 민주화 운동을 거쳐 구 재단이 몰락한 조선대는 지난 해 6월 말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사 부존재 사태가 9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봄 향기 그윽한 보리밭

청명을 나흘앞둔 1일 영암군 덕진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사료용 청보리밭에 유기질 비료를 뿌려주고 있다. '총체보리'로도 불리는 청보리는 사료값의 상승에 따라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8분 해질 18시 54분 달돋이 10시 55분 달질 01시 12분

한낮 포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광주	맑음	1/16℃
목포	맑음	2/13℃
여수	맑음	4/14℃
완도	맑음	2/15℃
구례	맑음	-2/17℃
해남	맑음	-1/15℃
장흥	맑음	-2/15℃
고흥	맑음	-1/15℃
순천	맑음	2/16℃
영광	맑음	0/12℃
진도	맑음	1/14℃
전주	맑음	-1/14℃
남원	맑음	-2/16℃
옥산도	맑음	3/10℃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목포 07:00	12:14
연바다	북서~북	1.0~2.5m	18:58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여수 01:40	07:56
연바다	북서~북	1.0~2.5m	13:31	20: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날씨						
최저/최고	3/17	5/16	5/17	4/19	6/21	7/22

경찰관 폭행 '무관용' 엄단 민생 범죄 소탕 60일 작전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은 공무원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집행방해 등 경찰을 상대로 한 공권력 침해사범(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은 모두 319건으로 이 중 85명이 구속되고 23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지난 2007년 294건(구속 55명, 불구속 239명)에 비해 8.5%(25건) 증가한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집기를 부수고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무원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훈방이나 즉심회부 대신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욕설 등 경미한 공무원집행 방해도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며 상습범이거나 흉기를 이용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수사 경찰 610명을 투입해 강·절도와 조직폭력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범위를 소탕하기 위한 60일 계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강·절도를 포함한 조직폭력,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여성·아동납치, 마약류 사범 등 7개 범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 골프 이어 낚시 금지령

경찰청이 간부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린데 이어 점심시간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복무규강 확립 지침을 1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 경찰청은 이 지침에서 고급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사행성 오락실의 사

적인 출입을 금지하고, 점심시간의 음주나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직원들끼리 부당한 사건청탁을 하지 말 것과 같은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끼 반달곰은 살아 있을까?

어미곰 동면 중 숨져 생존 가능성은 희박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월 출산한 지리산 반달가슴곰(NP-10)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동면하던 굴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어미곰이 동면 굴에 물이 흥건히 고이자 다른 동면 장소로 찾아 150여m를 이동하던 중 신체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탈진

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현장에서 새끼 곰이 발견되지 않아 주변을 수색하고 있지만 고지대의 추위와 먹이부족, 다른 야생동물의 공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정동혁 수의사는 "별다른 외상이 없으며 몸에 지방층이 거의 없다는 사실로 미루볼 때 새끼 양육과 과도한 활동 때문에 탈진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남스

조선대 교직원들에 의문의 문자메시지

집단행동 자제 촉구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재파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들에게 임시이사 파견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자제 등 회유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11시께 조선대와 산하 중·고교 교직원들에게 '집단행동 자제 촉구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동시에 떴다. 이 메시지는 '법인 정상화가 임박

했다. 운동권 세력의 상경집회 선동에 현명한 판단과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법인 설립재단'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단체 이름으로 작성된 이 메시지는 '조선대 법인 정상화와 임시이사 파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사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시각에 맞춰 발송됐다. 조선대 관계자는 "올 초부터 '조선대학교 설립 역사'의 진실"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구 재단의 입장을 합리화한 메일이 대학 관계자 및 지역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 재단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조선대 구성원들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대 구 재단의 관계자는 "우리는 임시이사 체제를 찬성하며, 다만 우선적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한 뒤 정이사 체제로 가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법인 설립재단 명의의 문자 메시지는 (우리단체가)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서 뭐라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지리산 4월 폭설...수학여행 버스 8대 한때 고립

1일 오후 3시40분께 구례군 산동면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인근의 도로가 갑자기 내린 눈으로 얼어붙어 수학여행 버스 8대가 고립됐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버스 안에는 인천의 한 중학교 학

생 326명이 타고 있으며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와 군청 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제설차량 등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한 뒤에야 내려올 수 있었다. 지리산에는 이날 아침부터 눈이 내

려 1일 오후 8시 현재 8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로가 결빙돼 천은사 매표소부터 전남과 전북 경계지역까지 15km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세기소닉·세기보청기

1388-9400 / 02-722-4100